

# 제4절 신흥종교\*

## 1. 한국의 신흥종교

신흥종교는 기성종교와 구별된다. 유교·도교·불교·기독교 등을 기성종교라 보고 1860년 동학의 발생을 기점으로 그 이후 새로 만들어진 순수 국산종교를 모두 한국의 신흥종교라 부른다. 동학의 발생은, 당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패가 만연한 사회상과 기성종교와 윤리 도덕의 퇴폐로 말미암은 사상적 빈곤이 그 주요 원인이 되었다. 한편 당시 국가 존망의 위기의식과 사회의 혼란 속에서 민중들의 심리에는 말세관이 팽배했다. 이는 신흥종교의 발생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민중들의 사고는 초월자나 신인(神人) 또는 도통(道通)군자가 나타나 새로운 정부 혹은 무상대도(無上大道)를 펴기를 갈망하였다. 그러한 갈망 속에 도통공부를 통해 영통(靈通)을 얻거나 신통을, 아니면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시사를 예언하고 새로운 교리를 주장하면서 교단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교단이 만들어지고 다시 분파를 일으켜 여러 계통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8·15해방과 더불어 신앙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무당들까지도 교리 없는 교단을 만들어 종교 간판을 내걸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생계수단으로 교리를 조작하여 기업종단을 만들기도 하고 신도들의 금품을 갈취하는 종단도 생기게 되었다. 현재 국내에는 13계통 400여 교단의 신흥종교가 있다. 이들을 계통별로 분류해보면 동학계·남학계·단군계·증산계(甌山系)·봉남계(奉南系)·신계계(晨鷄系)·불교계·기독교계·무속승신계·연합계·일관도계(一貫道系)·외래계·계통불명 등이다.

동학계는 일명 수운계(水雲系)라고도 부르는데 경주 사람 수운 최제우(崔濟愚)가 한울님 즉 상제(上帝)의 계시에 의해 '시천주(侍天呪)'와 '영부(靈符)'를 받아 유·불·선 3교 합일이라는 시천주 교리를 내세워 1860년 '무극대도(無極大道)' 또는 '동학'이라는 이름으로 신도를 모았다. 교세가 급속도로 확대되자 1894년 '동학당(東學黨)'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에 참여코자 광제창생(廣濟蒼生), 제폭구민(濟暴救民), 보국안민(輔國安民), 후천개벽(後天開闢)이라는 기치를 들고 동학농민혁명을 전개하였다.

동학농민혁명이 실패로 돌아간 뒤 3세 교주 손병희가 교단의 이름을 '천도교(天道教)'로 고치자 이에 반대하는 몇몇 지도자들은 시천교 등으로 교파를 분립하였다. 그뒤 많은 교파가 분립되거나 새로 만들어져 일제 때에 이미 20여 개의 교파를 이루게 되었다. 한때 천도교는 100만에 달하는 교인이 있었으나 일제의 한국종교 탄압정책으로 그 많았던 교파가 소멸되었고 8·15해방 이후 소멸되었던 교파들이 복원되지 못한 채 교세마저 미약해져 현재는 15개

\* 제4절은 오병무 집필임.

교파에 교인 역시 몇 만에 지나지 않는다.

남학계는 일명 연담계(蓮潭系)라고도 부르는데 전북 완주군 운주면 가천리에서 연담 이운규(李雲奎)가 1860년경 『정역(正易)』과 ‘오음주(五音呪)’를 가지고 교단을 이룬 것이다. 그뒤 교조 이운규의 2대 제자였던 일부 김항(金恒)과 광화 김치인(金致寅)이 ‘무극대도’와 ‘오방불교(五方佛敎)’를 만들어 분립하였다. 김항은 충남 연산지역을 중심으로 무극대도를 포교하였고, 김치인은 전북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를 중심으로 오방불교를 포교하였다. 이들 교단의 신도들이 오음주(음·아·어·이·오)를 외우면 곧 몸이 흔들리고 춤을 추듯 댄다고 하여 사람들은 이들 교단을 ‘영가무도교(詠歌舞蹈敎)’라 부르기도 하였다. 그뒤 일부의 제자들에 의해 많은 교파가 분립하였는데 대종교, 중앙대종교합십괘철학(中央大宗教合十卦哲學), 대동계(大同稷) 등 10여 개의 교파가 이루어졌다. 한편 광화교는 한때 동학교도로 몰려 많은 교인들이 관현에 붙들려 전주와 나주에서 처형되었으나 광화의 제자들에 의해 역시 몇 개의 교파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단군계는 김염백이 1890년경 평남 맹산에서 ‘신교(神敎)’라는 이름으로 국조 단군을 신앙 대상으로 하여 창교된 것이 그 시초이다. 그뒤 이 신교는 낙안 출신 홍암 나인영(교명: 철) 등이 창교한 ‘대종교(大宗教)’에 병합되었으나 여기서 정훈모에 의해 ‘단군교’가 분립하기도 하였다. 한편 대종교는 일제의 종교탄압으로 말미암아 본부를 만주로 옮겨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많은 교인을 잃기도 하였다. 8·15해방 후 국내로 돌아와 포교활동을 다시 시작하여 상당한 교세를 확립하기도 하였으나 단군을 신앙 대상으로 하는 종교단체와 국조로 받드는 사회단체가 발생하면서 교세가 약화되었다. 현재 20여 개의 단군계 교단이 있으나 교세가 미약하여 신도는 모두 합해 2만여 명에 지나지 않는다.

증산계는 전북 고부 출신 증산 강일순(姜一淳)이 1901년 전주 모악산 대원사에서 도를 깨달았다고 주장, 자기가 구천상제(九天上帝)의 화신으로 증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인신(人身)으로 화생(化生)하여 신명과 사람들에게 축적되어 있는 원한을 풀어 선후천(先後天) 교역기(交易期)의 개벽공사(開闢公事)인 천지공사(天地公事)를 행하여 지상선경(地上仙境)을 열겠다고 하면서 창교한 것이다. 그런데 1909년 그가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사망하자 그를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교단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그뒤 그의 세번째 부인 고씨가 신이(神異)의 현상을 보이면서 증산의 흥내를 내자 흩어졌던 제자들이 증산의 화생이라 주장하여 그녀를 교주로 교단을 만들었다. 그러나 고씨와 그의 제자들 사이에 교권을 놓고 쟁탈이 벌어져 보천교(普天敎), 미륵불교(彌勒佛敎) 등 20여 개의 교파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뒤 일제의 종교탄압으로 대부분의 교파들이 지하포교로 들어갔다가 8·15해방이 되자 자유롭게 활동을 전개하면서 한때 수십 만의 교세를 확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60여 개의 교파로 분립, 모두 합쳐 10여 만의 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봉남계는 제주도 출신 김봉남이 자신의 신병을 치료하기 위해 전국을 돌며 수도하던 끝에 찬물(참물, 법수, 냉수)을 먹고 병고가 제거되는 ‘물법’을 깨달았다고 주장하면서 교단을 이룬 것이다. 그런데 김봉남 자신이 스스로 물법을 깨달았다고보다는 전북 완주군 운주면 천등산에서 당시 물법치료를 하고 있던 손치성(孫致成)의 무량교(無量敎)에서 영향을 받아 교리를 체계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처음 부산 동래지역에서 포교하기 시작하였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중단하였다. 해방 뒤 재기하여 전북과 경상남북도를 중심으로 포교활동을 하였으나 그의 사망과 더불어 많은 교파가 분립하였다. 현재 성덕도교화원(聖德道敎化院)을 비롯하여 전국에 15여 개의 교파가 있다.

신계계는 ‘각세도계(覺世道系)’라고도 하는데 황해도 출신 신계 이선칭이 1915년 유·불·

선·야(기독교) 4교를 하나로 합친 각세진리 16자 주문을 천명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자칭 구세주로 행세, 교단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가 사망하자 그의 제자들 사이에서 교권 쟁탈이 일어나 4개의 교파를 이루게 되었다. 일제의 탄압으로 완전 소멸된 듯하였으나 8·15해방 후 재기되어 현재 10여 개 교파를 이루고 있으며, 교인은 모두 합하여 2~3만여 명으로 보인다.

불교계는 1868년 서울 삼각산에서 정극경 등이 염불단체로 결사한 '묘련사(妙蓮社)'가 그 효시로 생각된다. 그뒤 경남 동래 범어사에서 남원 출신 백용성 스님에 의해 1922년 '대각교(大覺敎)'가 만들어졌고, 1933년까지 10여 개의 교단이 만들어졌다. 원불교도 이무렵 '불법연구회'라는 간판을 걸고 등장하였다. 해방 뒤 대구를 중심으로 밀교계(密敎系)인 '대한불교진각종(大韓佛敎眞覺宗 : 심인불교)'과 '대한불교진언종(大韓佛敎眞言宗)'이 발생하였다. 1960년대에 이르러 조계종의 내분과 불교재산관리법에 얽힌 이해관계로 많은 불교 종단이 발생하였다. 대한불교원효종(大韓佛敎元曉宗), 대한불교화엄종(大韓佛敎華嚴宗), 대한불교천태종(大韓佛敎天台宗), 대한불교태고종(大韓佛敎太古宗) 등이 그러한 종단들이다.

또 증산교계에서 미륵불 출세신앙을 표방하며 불교의 이름을 사용하는 대한불교용화종(大韓佛敎龍華宗), 대한불교미륵종(大韓佛敎彌勒宗), 대한불교법상종(大韓佛敎法相宗), 미륵불교(彌勒佛敎) 등이 발생하였다. 또 일제 때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일연종(日蓮宗)이 한국인 신도들에 의해 해방 뒤 대한불교법화종(大韓佛敎法華宗), 대한불교불입종(大韓佛敎佛入宗), 대한불교일승종(大韓佛敎一乘宗), 한국불교법화종(韓國佛敎法華宗) 등의 이름으로 바뀌 한국적 불교단을 만들었다. 특히 최근에 유입된 일본 국수주의 종교 일연정종(日蓮正宗 : 창가학회)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포교되고 있다. 현재 불교계 신흥종단으로 60여 개의 교단이 전국에서 포교하고 있다.

기독교계는 1930년 일제 치하에서 외국의 선교에 힘입지 않고 독자적인 포교를 목적으로 전북 익산시 금마면에서 최태용 목사가 창립한 '복음교회'가 그 효시이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 신흥 기독교단의 발생은 1950년 나운몽(羅雲夢) 장로가 경북 금능군에 창립한 '용문산기도원(애향숙)'이다. 그뒤 1951년 문선명(文鮮明)이 부산에서 시작한 통일교(기독교통일신령협회), 그뒤를 이어 박태선(朴泰善)이 전도관(傳道館)을, 노광공(盧光公)이 동방교(東方敎, 기독교대한개혁장로회)를, 유재열(柳在烈)이 장막성전(帳幕聖殿)을, 이유성(李流成)이 새일교회를, 양도천(梁道泉)이 세계일가공회(世界一家公會)를 각각 창립하여 독자적인 포교를 하였다. 현재 기독교계 신흥종단은 전국에 60여 개가 포교하고 있다.

무속승신계는 전통적인 무속신앙을 하던 사람들이 하나의 교단을 형성한 것으로 체계적인 교리가 없는 것이 특색이다. 1920년 서울에서 박기홍(朴基洪), 김용식(金龍植)이 중국의 관우신명(關羽神明)을 신앙대상으로 하는 '관성교(關聖敎)'를 각각 창교한 것이 그 최초이다. 같은 해 전북 완주군 운주면 천등산에서 손치성이 무량교를 창립하였다. 그뒤를 이어 충남 계룡산에서 칠성교, 삼신교, 삼황교, 성화교 등이 만들어졌다. 이들 교단은 일제 때 만들어졌다. 해방 뒤 신앙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무속승신계는 그 수가 갑자기 불어나 현재 50여 개의 교단이 만들어져 전국에서 포교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무당들이 사찰의 이름을 사용하여, 외형은 마치 불교처럼 보이나 내부에서는 무속 행위를 하는 사이비 불교 사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하나의 종교라기보다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단 행세를 하고 있는 것도 있다.

연합계는 서로 다른 종단들이 모여 하나의 새로운 교단으로 등장한 것을 가리킨다. 때에 따라서는 같은 계통의 교단이 연합하여 만들어진 것도 있다. 최초의 연합계 종단은 1926년 천

도교 내에서 일어난 자파연합운동이라 말할 수 있다. 해방 직후 동학계와 증산교계의 연합이 있었고, 또 증산교계 자파의 연합도 있었다.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연합 교단은 마침내 새로운 교단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때로는 이름만 있을 뿐 아무런 효과도 없이 유아무야해지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현재 전국에는 10여 개의 연합계 교단들이 포교를 하고 있다.

외래계는 외국의 신흥종교로서 우리나라에 유입된 교단을 총칭한 것이다. 이는 다시 일본계·중국계·미국계로 분류할 수 있다. 일본계는 일연정종(창가학회)·천리교(天理教)·대우주신교(大宇宙神教) 등 10여 개 교단이 있으며, 중국계는 일관도가 있고, 미국계로는 여호와의 증인·물몬교·섹스교 등이 있다.

일관도는 우리나라에 유입된 뒤 여러 개의 교파로 분립, 때로는 일관도계로 분류하기도 한다. 일관도란 불교·유교·도교·기독교·회교 등 세계 5대 종교의 교리를 하나로 꿰고 있는 교단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일관도는 해방 뒤 중국에서 유입되었는데 처음에는 중국인 세 사람이 각자 포교를 하였다. 이들은 한때 도덕초기회(道德礎基會)라는 이름으로 통합하였다. 그러다가 한국인 제자들에 의해 도덕회, 대한도덕회, 국제도덕회로 분립되었다. 도덕회에서 다시 신령도덕회가 분립하였다.

계통불명은 앞에서 언급한 종교계통에 소속될 수 없는 교단들로 교리상·형태상·운영상 독자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는 종단을 가리킨다. 물론 이들 교단들도 언젠가는 자파계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의 계통불명의 교단으로는 일제 때에 금강도(金剛道)·정도교(正道教)·제화교(濟化教)·영주교(靈主教)·일심교(一心教) 등이 창교되었으며, 해방 뒤 고등종교관(高等宗教館)·정일회(正一會) 등이 만들어져 현재 20여 개의 교단이 전국에서 포교하고 있다. 원불교는 처음 증산교계에서 출발하여 불교계에서 발생하였으나 뒤에 이들과는 전혀 다른 독자적인 교단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통일교도 기독교계에서 출발하였던 것이나 뒤에 독자적인 교단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원불교와 통일교는 현재 계통불명으로 분류할 수 있다.

